세계체제의 위기와 한반도 문제

월러스틴의 《유토피스틱스》와 《이행의 시대》

이수훈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반도는 세계체제가 빚는 온갖 무질서, 동아시아 지역이 야기하는 다양한 영향력, 게다가 분단갈등이 얽힌 곳이다. 이런 공간에 생존의 터를 잡은 우리로서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적 문제제기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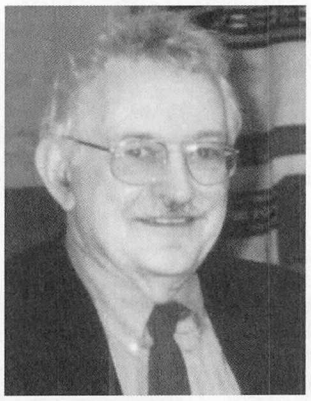
필자는 월러스틴을 비교적 잘 안다. 그의 학문세계도 비교적 잘 아는 편에 속할 것이다. 번역이 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권의 책에 대해서도 일찍이 개략을 알고 있었다. 그 책들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바다. 그래서 난무하고 있는 찬사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대신 이 책들, 《유토피스틱스》와 《이행의 시대》(이상 창작과비평사)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에 비추어 작금의 시대상황과 세계적 현실을 한반도인의 관점에 서서 생각해보겠다.

세계체제의 '이행기'

월러스틴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시대는 혼돈과 무질서, 복잡성과 비예측성의 시대다. 역사적 자본주의가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이행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행기에는 '지상의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온갖 무질서적이고 통제불가능한 현실이 나타난다. 그 대표격 둘을 꼽자면,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에서 기인된 세계 도처의 공황(한국 포함)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국가간 체제의 불안정에서 야기된,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폭력사태다.

이른바 '아시아 위기'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은 월러스틴에 의하면 간단명료하다. 혼돈과 무질서가 주조를 이루는 세계체제 동요의 일부다. 중심부자본의 지리적 재배치나 자본의 금융화와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불가능이 좀더 세부적인 답이다. 이런 일은 세계경제의 역사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기에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랄 일도 아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차례가 왔다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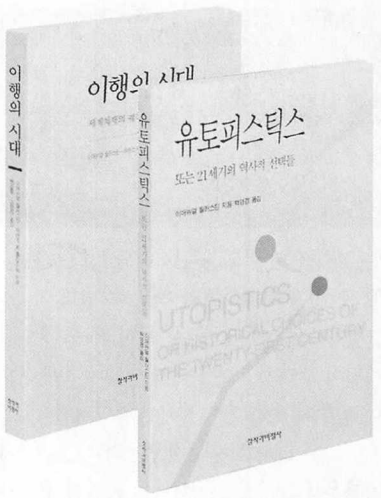
이라크에 이어 유고가 폭력의 장으로 변했다. 이 역시 혼돈기의 세계체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자면, 이들 사태는 미국 헤게모니체제의 퇴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1989년 소련이 붕괴하자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이의 귀결로 미국 헤게모니체제가 더욱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인식 역시 기존의 지배적 인식과 정반대에 서는 셈이며, 이는 월러스틴 사유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모든 기존의 굳어진 사유, 체계화되고 권위를 획득한 사유를 뒤집었다. 그의 주특기가 바로 뒤집기다.



월러스틴.

미국은 헤게모니국가가 아니라, 그와는 크게 달리 헤게모니를 서서히 잃어가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에 매달리기 위해 '헤게모니 효과'(hegemony effect)를 보인다. 걸프전에서 보인 에어쇼는 중동문제 해소는 말할 것 없고, 사담 후세인 제거에도 실패하는 어정쩡한 결과로 마감했다. '그래도 내가 제일 강하다'는 점을 시위하고 신세계질서를 부르짖으면서 없는 헤게모니를 억지로 창출하거나 심각하게 약화된 헤게모니에 매달리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소말리아·르완다·보스니아 등 세계 도처에서 '헤게모니 효과'를 발휘할 대상을 찾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문턱에서 그 대상은 역사의 기막힌 반복을 시위하려는 듯 코소보 지역이 되었다. 발칸 사태는 소련 붕괴 이후 자신의 존재근거를 상실한 나토가 복귀했다는 의미도 있다.

발칸의 폭력사태는 남북(南北)과 남남(南南)이라는 이중적 적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태는 결국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국가 잃은 난민들을 대규모 산출했다. 보호막, 치안 담당자로서의 국가 말이다. 그 국가가 무너졌고, 그 국가들을 정당화해주는 국가간 체제가 예전과 같이 작동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 자리에 온갖 대안적 유사제도나 임시방편이 들어서는데, 바로 인종·종족·민족 등의 이름을 단 '집단'이다.



허강세를 탄 국가

여기서 월러스틴 사유의 가장 핵심영역에 속하는 국가문제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 연구자이지만 애초 국가, 특히 신생국 정치에 관심을 둔 정치사회학자였다. 그는 자본주의가 국가라는 제도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며, 국가를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동시에 자본주의 재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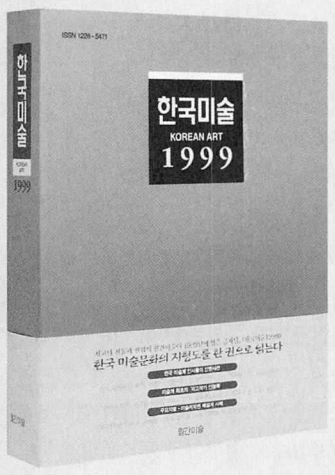
그런 국가가 자본주의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강세를 탔다는 것이다. 혼돈과 무질서의 많은 부분이 이 사실에 기인한다. 자유주의·개량주의, 진보에 대한 믿음, 복지·치안 이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국가에 대한 지지 철회 혹은 국가정당성 약화에 의해 설명된다. 그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1968년 혁명'은 바로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그 믿음에 대한 공격, 국가권력을 통해 실천을 도모하는 모든 운동세력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국가를 불신해왔고, 국가주의를 가장 경계했다. 드

미술계 정보 총결산

《한국미술 1999》

(주)월간미술에서 1998년도 미술계를 결산한 미술연감 《한국미술 1999》를 펴냈다. IMF 구제금융 이후 미술계는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작가들의 예술을 향한 열정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집으로 1998년 '사진영상의 해 결산' 기사를 권두에 싣고 각 미술분야별 개관, 행사·사건, 전시, 기사색인, 미술인 방명록, 자료 등을 수록했다.

특히 올해는 미술인 인명록을 대폭 확충했다. 현역 미술인 900여명을 추가하고 주요 전시 및 수상경력, 저서, 연락처 등을 기록했다. 현재 각 미술관, 화랑 등지에서 활동중인 큐레이터, 학예연구원도 포함시켰다. 1960년 이후의 작고작가 200명을 엄선, 생몰연도·주요경력·연구실적 등을 정리한 인명록을 추가하고 전국의 화방·필방·표구사, 고미술업체, 미술전문서점 등을 망라한 미술관련업체 자료도 실용적인 정보다. 또한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술저작권 해설과 각종 사례를 예시했다.



미술출판의 행사·사건을 개관하고 전문지 현황을 정리해 98년도 미술출판을 조망할 수 있다. 지난해는 약 1백90종의 미술 신간도서가 발간됐고,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미술 CD-롬을 제작했다. 호암미술관과 《월간미술》(http://art.joongang.co.kr)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 등을 각종 자료와 사진으로 제시했다. (771-9657)

월간미술/A5변형/900면/70,000원

디어 국가가 하강세로 접어들자 그의 숙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진일보한 체제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암흑기 이후에 등장할—우리가 집단적으로 건설할— 새 체제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않는다. 자본주의 제일의 속성이 끊임없는 자본축적인 한, 그 체제는 불평등과 비민주를 내장할 수밖에 없다. 그 자본주의, 그리고 그 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자본축적자를 위해 국가라는 제도가 있는 한, 국가는 악이다. 국가가 있는 한 자본주의는 재생산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핵심은 국가이며, 197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국가가 하강세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말로 이어진다. 국가가 없는 한, 독점은 불가능하고, 자본주의는 독점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독점이 깨지면, 즉 브로델이 말하는 시장이 도래하면, 이 체제는 지금보다 진일보한 체제가 되는 것이다. 그가 현실적 대안을 논하면서 비영리 병원과 각종 비영리 사업의 고안을 대안으로 주창할 때 특히 탈집중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바로 국가에 대한 반대 표시다.

창졸지간에 '환란'을 맞아 일거에 경제위기를 맞았으며, IMF라는 방망이에 흠씬 얻어맞았을 뿐만 아니라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참담한 '이행의 시대'를 더욱 곰곰이 사유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반도 북쪽이 겪고 있는 일대 재난과 이로 인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 위기'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여차하면 유고나 이라크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발칸반도의 화염이 강건너 남의 일일 수 없다.

한반도는 세계체제가 빚는 온갖 무질서, 동아시아지역이 야기하는 다양한 영향력, 게다가 분단 갈등이 얽히고 설킨 곳이다. 이런 공간에 생존의 터를 잡고 있는 우리로서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적 문제제기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유토피스틱스'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한반도 문제도 해소하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세계체제적 대안 찾기에 한몫을 담당하겠다는 '자유의지'를 품어봄직하다. ❖

책갈피 산책

절륜한 공격성에 부딪친 피정복자의 반응

이옥순 지음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를 읽고

김기협 · 사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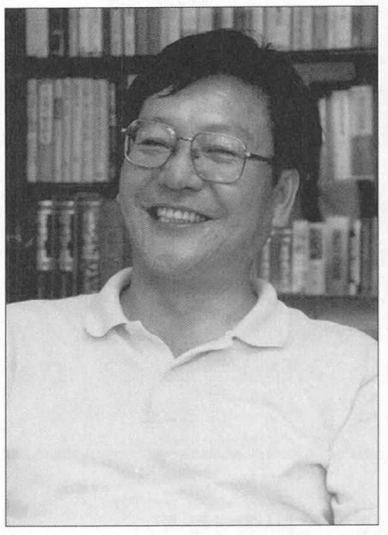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
땅과 하늘에 심판의 날이 닥칠때까지
영원히 만나지 못할 두 쌍둥이

키플링(1865~1936)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영원한 평행선을 그렸다. 유년기 6년과 청년기 7년을 인도에서 지낸 키플링에게 동양은 영감(靈感)의 젖줄이면서 또한 절대적인 피안(彼岸)이었다. 인간이 서로 닮았음을 확인하려 애써도 끝내 같을 수 없음을 그 시대 사람들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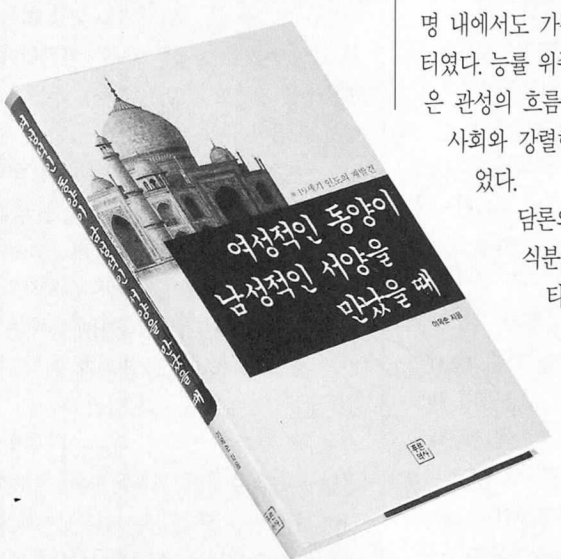
인간이 닮았으면서도 같을 수 없음을 더 끈질기게 확인해온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다. 가장 가까운 관계면서도 명확히 규정하려 하면 그 규정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끝없이 불거져나온 것이 이 관계다. 남녀관계는 인류 역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하나의 중요한 축(軸)이다. 키플링의 글귀에서 동양과 서양을 여자와 남자로 바꿔놓으면 수긍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는 근대 동서양 관계를 남녀관계에 비쳐보임으로써 시야를 입체화시켜 주는 글이다. 정복자 서양은 지배자=남성, 피지배자=여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관념은 식민지 인도인의 의식에도 투영되어 남성화의 방향에서 자존과 자립의 길을 찾는 노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명제다. 이 명제는 19세기 인도가 겪은 변화의 과정을 바라보는 무척 재미있는 시각이다. 인도사는커녕 역사에 별 흥미가 없던 독자라도 "역사를 이런 식으로도 보는구나"하고 들여다볼 만한 책이다. 그리고 주의깊은 독자라면 역시 피지배자로서 동양인의 운명을 겪은 우리 역사에 적용시킬 만한 모퉁이를 이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정복자 서양은 지배자=남성,
피지배자=여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관념은 식민지 인도인의
의식에도 투영돼 남성화의 방향에서
자립의 길을 찾는 노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명제다.
이는 19세기 인도가 겪은 과정을
바라보는 무척 재미있는 시각이다.



김기협씨.



예교(禮敎)와 명분을 중시하고 무력(武力)과 이익을 멀리하던 우리 조상들은 공격적인 서양문명 앞에 여성적인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농업문명과 밀집된 인구를 가진 동양에서 평화공존과 현상유지를 위해 다년간 축적해온 질서의 원리가 서양문명의 파괴력에 부딪치면서 장점보다는 약점만을 드러낸 것이 피정복자로서 동양의 공동운명이었다.

이미지 대비의 근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군인·선교사·행정가·상인으로 구성된 초창기의 정복집단에는 여성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정복집단은 정복문명 내에서도 가장 공격적 성격을 가진 섹터였다. 능률 위주로 조직된 이 준군사집단은 관성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던 토착사회와 강렬한 대비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담론의 핵심은 식민지사회의 의식분화에 있다. 총체적 아이덴티티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긴 세월을 지내 온 토착사회에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식민지배자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엘리트계층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서양식 생각의 틀을 베끼면서 그 틀 속에 자민족의 자리를 새로 만들어넣으려 한다. 서양인에 앞선 침략자-지배자로 상대적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무슬림인이 직접적 경쟁의 상대로 지목된다. 힌두 민족주의가 무슬림을 거울로 탄생한 데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독립, 최근의 핵 경쟁도 예약된 것이었다.

중국의 혁명파가 만주족 지배에 중국문명 부진의 책임을 돌린 것도, 조선의 개화파가 중국의 종주권에 민족정신 침체의 원인을 물은 것도, 힌두 민족주의가 무슬림 체제에서 인도 타락의 조건을 찾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직접 부딪치기 벅찬 먼 곳으로부터의 충격 앞에서 대응자세를 갖추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그 과정에서는 서양 세력의 남성적인 공격성을 닮으려는 의식이 어디에나 깔려 있었다.

고대문명의 발상지이자 불교의 고향인 인도와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적 독립운동 사이에는 뭔가 연속된 흐름이 있을 것 같다. 그 흐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읽을거리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개념들을 역사서술에 적용시켜 보여줌으로써 역사 읽는 눈을 넓혀주는 것은 더더욱 고마운 일이다. ❖

푸른역사/A5신/200면/8000원